

탐방 발걸음에 한라산 노면 침식 가속

도, 28일 기초학술조사 4차년도 용역 중간보고회 연구진 탐방객 답압 인한 노면침식 등 현상 확인 돈내코 가장 심각... 성판악·관음사·어리목 등 순

한라산 탐방로가 탐방객 발걸음에 의해 침식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한라수목원 생태학습관 시청각실에서 한라산전연보호구역 기초학술조사 4차년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수행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수행기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다.

연구진은 지형침식 현상을 하천·조지·탐방로·암반 등 지역별로 조사

했다. 그 결과 한라산 탐방로가 탐방객들의 답압으로 인한 노면침식 등이 주로 나타났다.

또 답압으로 식생이 훼손된 구간과 토양은 물이 투과하기 힘든 지면으로 변화해 비가 오면 토양 유실이 나 노면 침식을 불렀다.

게다가 노면침식으로 인해 탐방로 바닥 침식(세굴), 암반·뿌리 노출, 노폭 확대 및 비탈 붕괴 등 침식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탐방로 250m 구간 내 훼손 빈도수

가 5건 이상 나타난 비율을 보면, 돈내코(46%)가 가장 심각했다. 성판악 탐방로는 19%, 관음사 탐방로 15%, 어리목 탐방로 12%, 영실 탐방로 8% 순이었다.

훼손 분야별로 보면 노면침식형, 수목뿌리노출형, 경계침식형, 노폭확대형, 노면세굴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역진은 4차년도 지형침식 현황과 암반사면 안정성 평가결과를 종합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라산전연보호구역 남서부 지역(해발 950~1800m) 식물상과 식생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97과, 252속, 356종, 8아종, 41변종, 3품종 등 총 408분류군을 확인했다.

위급종(CR)은 암매, 한라솔다리 등 5종, 위기종(EN)은 한라구절초 등 4종, 취약종(VU)는 들쪽나무 등 4종이 확인됐다.

외래식물은 서양금혼초, 소리쟁이, 토끼풀, 오리새 등 4분류군이 확인됐으며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잠재되어 모니터링과 제거작업 등의 관리를 제안했다.

용역진은 이와 관련 “한라산 남서부 지역에 중요도가 높은 5등급 중 (23 분류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라산전연보호구역은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의 분포비율이 대단히 높다. 식물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입지와 식물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주지역 바우처 활발

올해 17개 사업 9177명 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으로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등 17개 사업에 91억원을 투자해 7월까지 총 9177명이 이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용 대상별로는 아동 청소년분야 4478명(7개 사업), 가족분야 281명(2개 사업), 노인분야 3841명(3개 사업), 성인분야 547명(4개 사업), 장애인분야 30명 (1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올해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는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어르신여가활동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순으로 꼽혔다.

제주도는 사업 투명성 확보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제주연구원(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함께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과 제공기관 관리 역량 및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제공기관 등록 예정기관 및 신규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품질관리 컨설팅을 강화하고, 오는 10월쯤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한 1:1 심층면담을 추진한다.

이소진기자



29일 오후 KBS제주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이상국수습기자

제2공항 건설사업 道-반대측 ‘격론’

어제 80분간 2대2 토론 진행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제주도과 반대 측과의 공개 TV토론회가 처음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28일 오후 7시10분부터 80분간 KBS제주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

론회에는 제주도 측 김익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와 이상용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반대 측 문상빈 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참석해 2대2 토론을 벌였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대로 공항인프라 확충과 주민참여방안 등의 의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차 TV토론회는 오는 9월 4일 오후 7시10분 KBS제주 방송국에서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제주도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반대 측에서 박찬식 상황실장이 참석해 1대1 토론을 진행한다.

이소진기자

알림

제주현안 현장탐방

청소년 캠프

1차 참가자 모집

2019 JDC와함께하는

제주탐방 청소년캠프

한라일보에 올해 청소년들의 눈으로 제주의 현안을 짚어보며,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2019 JDC 제주탐방 청소년캠프'를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일시: 9월8일(일) 오전 9시~오후 5시

▶대상: 도내 초(4-6)·중·고등학생

▶모집인원: 20명(선착순 마감). 참가비 무료

▶신청기간: 8월29일~9월4일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brighthh@naver.com)

※서식-이름/학교/학년/연락처 기입

※참여대상자는 9월5일 오전10시 개별문자 발송

▶교육내용: 팀별 제주현안(환경, 안전, 교통문제 등) 현장탐방

▶문의: 010-2024-5692(담당기자)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개시

최근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 진단기관으로 승인 고병원성 AI·구제역·돼지열병에 이어 추가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 Swine Fever; ASF)의 주요 전파요인인 야생 멧돼지에 대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진단 기관’으로 지난 23일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진단 기관이 없어 신속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제역·AI·돼지열병 등 3종에 대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2018년 4월 24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질병 진단을 추가로 승인 받게 됐다.

야생동물(멧돼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기관 지정으로 야생생물 관리협회 등에서 채취된 멧돼지의 가검물(혈액) 등에 대해 ASF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결과는 환경부와 공유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ASF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기관 지정으로 야생동물(멧돼지)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조기 검체체계를 구축 하겠다”면서 “아울러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진단 검사항목을 확대해 현재 승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4종에서 결핵병, 브루셀라병, 소해면상뇌증 등 19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키워드로 읽은 중국문화... 7면 / 조미영의 마을탐방... 9면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흥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